

국 어

1. 밑줄 친 단어 중 품사가 다른 것은?

- ① 쌍둥이도 성격이 다른 경우가 많다.
 ② 그 사람은 허튼 말을 하고 다닐 사람이 아니다.
 ③ 그는 갇은 양념을 넣어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다.
 ④ 사람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는 외딴 집이 나타났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 ~ 3]

- (가) 광혜원 아월마을에서 칠현산 기슭에 이르기 전에
 그만 나는 영문 모를 드넓은 자작나무 분지로 접어들었다
 누군가가 기라고 내 등을 떠밀었는지 나는 뒤돌아보았다
 아무도 없다 다만 눈발에 익숙한 먼 산에 대해서
 아무런 상반도 없게 자작나무숲의 벗은 몸들이
 이 세상을 ㉠ 정작하게 한다 그렇구나 겨울나무들만이 ㉡ 타락을
 모른다
- (나) 슬픔에는 거짓이 없다 어찌 삶으로 울지 않은 사람이 있겠느냐
 오래오래 우리나라 여자아발로 울음이었다 스스로 달려온
 울음이었다
 자작나무는 저희들끼리건만 찾아든 나까지 하나가 된다
 누구나 다 여기 오지 못해도 여기에 온 것이나 다름없이
 자작나무는 오지 못한 사람 하나하나와도 함께인 양 아름답다
- (다) 나는 나무와 나뭇가지와 깊은 하늘 속의 우듬지의 떨림을 보며
 나 자신에게도 세상에 우쭐해서 나뭇짐 지게 무겁게 지고 싶었다
 아니 이런 추운 곳의 ㉢ 적막으로 태어나는 눈엽이나
 삼거리 술집의 삶은 고기처럼 순하고 싶었다
 너무나 ㉣ 교조적인 삶이었으므로 미풍에 대해서도 사나웠으므로
- (라) 얼마 만이냐 이런 곳아발로 우리에게 십여 년 만에 ㉤ 강렬한
 곳이다
 강렬한 이 ㉥ 경건생 이것은 나 한사람에게가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 말하는 것을 내 벽찬 가슴은 벌써 알고 있다
 사람들도 자기가 모든 낱알 중의 하나임을 깨달을 때가 온다
 나는 어린 시절에 이미 늙어버렸다 여기 와서 나는 또 태어나야
 한다
 그래서 이제 나는 자작나무의 ㉦ 천부적인 겨울과 함께
 깨물어 먹고 싶은 아예뻘에 들떠 누구네의 어린 와동팔로 자라난다
- (마) 나는 광혜원으로 내려가는 길을 등지고 삭풍의 칠현산 험한 길로
 서슴없이 ㉧ 지향했다

- 고은, '자작나무 숲으로 가서' -

2. 제시된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기반성과 자기 연민의 슬픈 목소리가 시 전체를 통해 유지되고 있다.
 ② 자작나무 숲을 자라는 과정은 통과 제의적 양상을 드러낸다.
 ③ (다)의 '미풍'은 삶의 아주 작은 국면을 뜻한다.
 ④ (마)는 삶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에서 오는 자신감이 투영되어 있다.

3. 한자어를 한자로 옮길 때 바르지 못한 것이 있는 것은?

- ① ㉠ : 正直, ㉡ : 墮落 ② ㉢ : 寂寞, ㉣ : 教條
 ③ ㉤ : 強烈, ㉥ : 敬虔 ④ ㉦ : 天賦, ㉧ : 志向

4. 밑줄 친 어휘의 뜻풀이로 바르지 못한 것은?

- ① 그는 잠시 궁싯거리다가 면접관을 향해 꾸벅 인사를 했다.
 - 궁싯거리다 : 어찌할 바를 몰라 이리저리 머뭇거리다.
 ② 오랑캐꽃은 소복소복 무리를 지어 가며 다문다문 피었다.
 - 다문다문 : 공간적으로 배지 아니하고 사이가 좀 드문 모양.
 ③ 이 동네 사람들, 이 늙은이 주검 위에 뗏장 한 장씩은 덮어 주러
 올 것이다.
 - 뗏장 : 장례 때 사용하는 삼베 조각.
 ④ 팔십 전을 손에 쥔 김 침지의 마음은 푼푼하였다.
 - 푼푼하다 : 모자람이 없이 넉넉하다.

5. 로마자 표기법이 잘못된 것은?

- ① 인왕리 : Inwang-li ② 독립문 : Dongnimmun
 ③ 같이 : gachi ④ 하회탈 : Hahoetal

6. 각 단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 대전 지법 제12 형사부는 지난 8일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일명 화학적 거세법)에 대해
 헌법 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화학적 거세가
 본인 동의를 구하지 않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 강제적으로
 집행된다는 이유에서다. 대전 지법 관계자는 '화학적
 거세법이 자기 결정권이나 신체를 훼손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나) 화학적 거세는 성적 활동이나 성욕을 감퇴시킬 목적으로
 약물을 투여하는 방식이다.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한 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2011년
 7월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3일 미성년자 성폭행범인
 30대 남성에게 첫 화학적 거세 판결이 내려졌다. 다음
 달부터는 피해자 연령에 상관없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 (다) 법조계와 일부 인권단체는 본인의 동의 없는 강제적인 화학적
 거세는 위헌 소지가 크다고 주장한다. 미국, 덴마크, 핀란드
 등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는 국가 대부분이 당사자의 동의를
 요구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약물 투여 기간에만 성욕이 감퇴할
 뿐 범죄 재발 방지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많다.
- (라) 반론도 만만치 않다.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먼저라는 주장이다. 성범죄는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범죄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화학적 거세가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 2013년 2월 15일자 한경닷컴 <맞짱토론> 서문(序文) -

- ① (가) : 대전 지법은 헌법 재판소에 화학적 거세법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② (나) : 현재 시행 중인 화학적 거세가 다음 달부터 피해자 연령에
 상관없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③ (다) : 화학적 거세는 범죄 재발 방지 효과가 없다.
 ④ (라) : 범죄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화학적 거세가 시행되어야
 한다.

7. 우리말 표현으로 옳은 것은?

- ① (시청 간부가 외부 전문가에게) 저는 시청에 근무하는 전우치 과장입니다. 교수님께 하반기 경제 전망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전화를 드렸습니다.
- ② (간호사가 환자에게) 환자분, 주사 맞게 침대에 누우실게요.
- ③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아범은 아직 안 들어왔어요.
- ④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저희나라 국민들은 독도 문제에 대해 매우 민감합니다.

8. 다음 글의 내용에 가장 부합되는 시조는?

급히 세수하고 의관을 정제하며 방장에 나아가니 다른 제자들이 이미 다 모였더라.
대사 소리하여 묻되,
“성진아, 인간 부귀를 자네나 과연 어떠하더뇨?”
성진이 고두하며 눈물을 흘려 가로되,
“성진이 이미 깨달았나이다. 제자 불초하여 염려를 그릇 먹어 죄를 지으니, 마땅히 인세에 윤회할 것이어늘, 사부 자비하사 하룻밤 꿈으로 제자의 마음 깨닫게 하시니, 사부의 은혜를 천만 겁이라도 갚기 어렵도소이다.”
대사 가로되,
“네 승흥하여 갔다가 흥진하여 돌아왔으니 내 무슨 간예함이 있으리오? 네 또 이르되 인세에 윤회할 것을 꿈을 꾸다 하니, 이는 인세와 꿈을 다르다 함이니, 네 오히려 꿈을 채 깨지 못하였도다.”

- 김만중, '구운몽(九雲夢)' -

- ① 首陽山 바라보며 夷齊를 恨호노라
주려 죽을진들 採薇도 恨는것가
비록애 푸새엿 거신들 그 뉘 싸해 낫드니
- ② 歸去來 歸去來 혼들 물러간 이 그 누구며
공명이 浮雲인 줄 사람마다 알건마는
세상에 꿈 깬 이 없으니 그를 슬허호노라
- ③ 梨花에 月白호고 銀漢이 三更인 세
一枝春心을 子規야 아라마는
多情도 病人 냥호여 줌 못 드려 호노라
- ④ 長安을 도라보니 北關이 千里로다
魚舟에 누어신들 나즌 스치 이시랴
두어라 내 시름 안니라 濟世賢이 업스랴

9.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외래어는 원래의 언어에서 가졌던 특징을 잃어버리고 새 언어에 동화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외래어의 동화 양상을 음운, 형태, 의미적 측면에서 살펴보자.

첫째, 외래어는 국어에 들어오면서 국어의 음운적 특징을 띠게 되어 외국어 본래의 발음이 그대로 유지되지 못한다. 자음이든 모음이든 국어에 없는 소리는 국어의 가장 가까운 소리로 바뀌고 만다. 프랑스의 수도 Paris는 원래 프랑스 어인데 국어에서는 ‘파리’가 된다. 프랑스 어 [r] 발음은 국어에 없는 소리여서 비슷한 소리인 ‘ㄹ’로 바뀌고 마는 것이다. 그 외에 장단이나 강세, 성조와 같은 음운적 자질도 원래 외국어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만다.

둘째, 외래어는 국어의 형태적인 특징을 갖게 된다. 외래어의 동사나 형용사는 ‘-하다’가 반드시 붙어서 쓰이게 된다. 영어 형용사 smart가 국어에 들어오면 ‘스마트하다’가 된다. ‘아이러니하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는 명사에 ‘-하다’가 붙어 형용사처럼 쓰인 경우이다.

셋째, 외래어는 원래 언어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쓰일 수 있다. 일례로 프랑스 어 madame이 국어에 와서는 ‘마담’이 되는데 프랑스 어에서의 ‘부인’의 의미가 국어에서는 ‘술집이나 다방의 여주인’ 의미로 쓰이고 있다.

- ① 외래어의 갈래 ② 외래어의 특성
③ 외래어의 변화 ④ 외래어의 개념

10.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선 시대의 백자는 기교가 넘치는 고려 시대의 청자와는 달리 담백하여 () 멋이 있다.

- ① 곡진(曲盡)한 ② 소박(素朴)한
③ 섬세(纖細)한 ④ 진중(珍重)한

11.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음소들이 결합하여 음절이 되고, 이것들이 다시 결합하여 단어가 되고 문장이 되면서 언어의 주요 기능인 의미 전달이 이루어진다. 음소들이 결합될 때 음소들의 음성적 특성, 즉 음성 자질들의 특성에 따라 앞뒤 음소들이 변하게 되는데 이것을 음운의 변동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소리가 변하는 원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노력 경제’와 ‘표현 효과’ 두 가지이다. 즉, 소리는 발음할 때 힘이 덜 드는 방향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표현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가까운 조음 위치나 비슷한 조음 방법의 소리가 연속된 경우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발음할 때 힘이 덜 들게 된다. 그래서 상이한 소리들이 비슷한 위치나 방법의 소리들로 닮아 가게 되는데 이것을 ‘동화’라고 한다. 곧 동화는 노력 경제에 부합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와 달리 음운의 변동에 ‘노력 경제’와는 상반된 심리 작용이 작동하기도 한다. 비슷한 특성을 가진 음소의 연결로 청각 효과가 약하다고 인지될 경우, 오히려 공통성이 적은 다른 음소로 바뀔 수 있다. 이처럼 발음상 힘이 더 들더라도 청각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변동하는 현상을 ‘이화’라고 하며, 이에 모음조화 파괴 현상과 사잇소리 현상 등이 있다.

- ① ‘노력 경제’와 ‘표현 효과’는 음운 변동의 주요한 원인이다.
② 음운의 변동이 일어날 때에는 심리적 원인이 개입될 수 있다.
③ ‘표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동화의 이점을 포기해야 한다.
④ 가까운 조음 위치나 비슷한 조음 방법을 사용할 경우 청각적 효과가 높아진다.

12. 다음 설명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동의보감』에서는 인간을 생식(生殖)을 할 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대별하였다. 남자 16세 이상, 여자 14세 이상의 성인과 그렇지 못한 소아의 구분이 그것으로, 남자는 16세 이상이 되어야 정(精)을 생산할 수 있고 여자의 경우 14세 이상이어야 월경을 통해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생식을 통해 후세를 이어 갈 수 있는 인간만이 참된 인간으로 정의된 것이다.

여기서 남정(男精)과 모혈(母血)의 개념이 중요하게 대두된다. 이러한 남녀의 구분법은 단순히 생리적인 성 차이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생식을 중시한 표현이었다. 남정의 개념이 생식 가능한 남자를 중심에 놓고 있는 것처럼, 모혈 역시 생식 가능한 여성만을 고려한 표현이다. 이에 따라 남성에게는 정(精)이, 여성에게는 혈(血)과 자궁(子宮)이 중요한 기능으로 파악되었다.

- ① 혼인이라는 사회적 의례가 매우 중요하다.
② 성인이라 하여도 자녀를 생산할 수 없다면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없다.
③ 인간의 사회적 중요도는 성인 남자-성인 여자-어린이의 순서이다.
④ 『동의보감』에서는 질병의 원인에 따라 병을 분류한다.

13. 밑줄 친 부분의 한자 사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뛰어난 ㉠ 技術을 가진 사람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 문제를 어떻게 ㉡ 技術적으로 해결하느냐가 오늘날 교육의 과제이다. 우선 현재 인재 양성 실태의 정확한 ㉢ 記述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보이지만, ㉣ 記述적으로 불가능한 방안을 폐기해야 할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14. 밑줄 친 단어의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나는 오랜만에 자장면을 시켜 먹기 위해 중국집에 전화를 했다. 종업원이 전화를 받고는 내가 있는 곳이 ㉠ 언덕배기라서 한 그릇은 배달을 해 줄 수 없다고 했다. 나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으며 “그럼 ㉡ 곱빼기를 시키면 올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 기분 같으면 그놈의 ㉢ 대갈빼기를 휘갈겨 주고 싶었지만 음식이 올 때까지는 참을 수밖에 없었다. ‘차라리 어제처럼 단골 식당에서 ㉣ 뚝배기를 시켰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하고 후회를 했다.

- ① ㉠ ② ㉡
③ ㉢ ④ ㉣

15.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표기한 유형과 방식은 대체로 다음의 네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한자를 수용하여 그대로 사용하되 우리말의 순서대로 배열한 것을 흔히 서기체 표기라 한다. 서기체 표기는 우리말의 어순에 따라 한자가 배열되고 한자의 뜻이 모두 살아 있으므로, 우리말의 문법 형태소를 보충하면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이두체 표기로, 어휘 형태소와 문법 형태소가 구분되어 표기된다. 즉 어휘 형태소는 중국식 어휘가 그대로 사용되고 문법 형태소는 훈독, 훈차, 음독, 음차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기된다. 그리고 구나 절은 한문이 그대로 나타나기도 한다.
셋째, 어휘 형태소와 문법 형태소를 가리지 않고, 훈독, 훈차, 음독, 음차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향찰체 표기라 한다. 국어 문장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 주는 대표적인 차자 표기 방식이라 하겠다.
넷째, 한문 문장을 그대로 두고 필요한 곳에 구결(입결)을 달아 이해의 편의를 도모한 문장이 있다. 이를 흔히 구결문이라고 한다.

- ① ‘서기체 표기’는 문법 형태소를 반영하였다.
② ‘이두체 표기’는 문법 형태소가 표기되지 않는다.
③ ‘향찰체 표기’는 중국어 어순에 따라 어휘가 배열된다.
④ ‘구결문’은 구결(입결)이 없어도 문장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16. 밑줄 친 부분 중 비유법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붓질은 물기가 흥건하여 윤택하기 그지없다. 그런 호방한 붓질로 장승업은 정신이 번쩍 들게 때려 넣는가 하면 당겨 뽑고, 꺾어 냈는가 하더니 잔가지를 이리저리 빼쳐 댔다. ㉠ 나무 이과리는 크고 작은 울림이 자진모리장단을 타고 달리는 듯하더니, 급기야 ㉡ 독수리며 나무 이끼의 반복되는 점들에 이르자 갑자기 쏟아진 장대비인 양 후드득 두들겨 댔다. ㉢ 그것은 형상이기 이전에 움직임이고, 보고 있는 동안 그대로 음악이다. 그러나 어떤 일인가? 나무는 나무, 독수리는 독수리, 풀잎은 풀잎이다. 어느 하나 틀에 맞춰 그런 것이 없으니, 과장과 왜곡은 분명하다. ㉣ 그런데도 넘쳐나는 이 생명력은 무엇인가?

— 故 오주석, ‘오주석이 사랑한 우리 그림’ 중에서 —

- ① ㉠ ② ㉡
③ ㉢ ④ ㉣

17. 밑줄 친 말이 문장의 의미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 ① 그는 강소주를 마시고 의식을 잃고 말았다.
② 호박잎과 함께 찜밥을 먹을 때는 강된장이 제격이다.
③ 강밥을 먹으면서 반찬을 많이 먹었다니 배가 너무 부르다.
④ 양념한 굴보다 강굴이 더 담백하고 맛있다.

18. 밑줄 친 어휘의 사용이 바른 문장은?

- ① 우리 농구 팀은 실력의 월등한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상대 팀에 지고 말았다.
② 그의 성공은 불우한 가정환경에 굴하지 않고 성실히 노력한 탓이다.
③ 입사 시험 준비를 하느라 잠을 못 자서인지 체중이 많이 줄었다.
④ 우리 방범대원들은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19. 다음 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허균의 不羈奔放한 탈선적 생활은 마치 르네상스 시대의 여러 천재들을 연상케 한다. 안장복에 의하면, 허균은 심지어 남녀의 정열을 天이라 하고 分別倫紀를 聖人之教라 하여, 天이 성인보다 높은 것이 만큼 차라리 성인의 가르침을 어길지언정 천품의 본성은 감히 어길 수 없는 일이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글개나 하는 浮薄한 文士들이 그의 門徒가 되어 天學을 주장하였지만, 그것은 서양의 天主學과는 霄壤의 차이가 있는 것이요, 견주어 같이 논할 성질의 것이 못 된다고 하였다. 허균이 仙道, 특히 불교에 관한 서적을 탐독하였음을 사실이다. 그로 인하여 罷官까지 당한 일이 있었다. 또 일찍이 燕京에 왕래한 관계로 『天主實義』를 읽었으리라는 것도 추측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天이 성인보다 높다는 사상을 유독 西學의 영향이라고 보는 하나의 속단이 아닐까? 성인보다 높은 天이라고 하여 그 天이 반드시 서학의 天主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치 않다. 그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본연지성을 그의 존엄성에 있어서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함이 타당할 것이다. 天命之謂性의 성 자체의 존엄성이 성인이 제정한 倫紀보다 우월하다는 뜻일 것이다. 삼강오륜이 절대 불가침의 도덕률로 되어 있었던 그 당시에 있어서 대담무쌍한 발언이라 하겠으나, 오히려 모든 도덕률의 근간이 다름 아닌 인간의 본연지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려 한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공자도 五十而知天命하고 六十而耳順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물론 허균 자신의 貪淫縱慾을 從心所欲不踰矩의 경지와 혼동하였다면 그것은 용서가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시대의 변천을 무시하고 그저 舊穀만을 墨守하려는 태도로부터 용감하여 탈피하여 보다 근원적인 天과의 관련에 있어서 인간성의 진면목을 드러내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 ① 허균의 천(天)과 인간의 본연지성
② 허균의 자유분방한 생활을 통해 본 그의 천재성
③ 서학의 입장에서 본 허균의 천학
④ 조선 시대 사상계의 경직성

20. 다음 글의 설명에 어긋나는 문장은?

중세 국어의 의문문은 명사에 보조사가 통합되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의문사가 없이 가부(可否)의 판단만을 묻는 판정 의문에는 ‘가’가 쓰이고, 의문사가 있어 상대방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에는 ‘고’가 쓰인다. 의문의 보조사 ‘가, 고’는 ‘ㄹ’이나 ‘ㅏ’ 모음 뒤에서는 ‘ㄱ’이 ‘ㅇ’으로 약화되어 ‘아, 오’로 나타난다.

- ① 이 두 사르미 眞實로 네 향것가
② 그 빠디 흥가지오 아니오
③ 니르샤디 이 엇던 光明고
④ 法法이 므슴 얼굴오

【2013년 6월 22일 시행 7급 공개채용 필기시험 : 국어】

1. 답 ①

순수 관형사와 용언의 관형사형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관형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뒤에 오는 피수식어인 체언만을 수식하면서 그 형태가 굳어져 있는 단어들이고, 용언의 관형형은 문장 속 안긴문장에서 서술어의 역할도 겸하면서 어미의 활용이 가능한 단어들이다. ①의 ‘다른’은 관형형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문장 속 안긴문장의 서술어의 기능도 있어서 ‘(쌍둥이가) 성격이 다르다’와 같이 독립적인 문장으로 떼어낼 경우 서술어의 기능을 할 수 있어서 품사는 형용사가 된다.

cf. 다른 : [관형사] 당장 문제되거나 해당되는 것 이외의.

<용례> 다른 사람들은 어디 있지? / 다른 생각 말고 공부나 해라.
/ 그는 자기 일 밖의 다른 일에는 관심이 없다. / 편식하지 말고 다른 것도 먹어라. / 그는 다른 곳에서 자라서 이곳 물정을 잘 모른다.

[오답 풀이]

나머지는 모두 품사가 관형사로 쓰인 단어들이다.

② 허튼 : [관형사] 쓸데없이 헛뜨거나 막된.
<용례> 허튼 말 / 허튼 일 / 허튼 약속 / 허튼 수작 / 허튼 놈
③ 갖은 : [관형사] 골고루 다 갖춘. 또는 여러 가지의.
<용례> 갖은 고생 / 갖은 수단 / 갖은 양념 / 갖은 노력 / 갖은 보물 / 갖은 곤욕
④ 외딴 : [관형사] 외딴으로 떨어져 있는.
<용례> 외딴 마을 / 외딴 방 / 외딴 봉우리 / 외딴 전각

2. 답 ①

이 시에서 화자는 ‘누군가가 가라고 등을 떠밀듯’ 마주한 자작나무 숲을 거닐면서 지난날의 거칠고 황량했던 삶을 반성하면서, ‘광혜원의 내리가는 길을 등지고 칠현산의 험한 길’로 올라감으로써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가)부터 (다)까지는 화자의 자기반성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고 (라)와 (마)에서는 이전의 방황하던 삶을 극복하겠다는 극복하고 새롭게 나아간다는 의지가 뚜렷하게 보인다. 이 시를 관통하는 어조는 관조적 이면서 의지적이라고 볼 수 있겠다.

[요점 정리]

성격 : 자기반성적, 관조적, 의지적
어조 : 새출발을 향한 자기다짐의 목소리
구성 :
(가) 신의 섭리와도 같이 만나게 된 자작나무 숲 : 기
(나) 자작나무 숲을 거닐면서 정화가 된 자아의 모습 : 승
(다) 지난날의 거칠고 교조적이었던 과거에 대한 자기반성 : 전
(라)~(마) :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다짐 : 결

3. 답 ④

시적 화자는 편하게 갈 수 있는 ‘광혜원 내리막길’ 대신 험준하게 올라가야 하는 ‘칠현산’을 향해 서슴없이 힘차게 올라가고 있다. 어느 한 방향을 향해 앞으로 나아감을 뜻하는 단어는 ‘지향(指向 : 가리킬 지, 항할 향)’이다. 선택지 ㉔의 ‘지향(志向 : 뜻 지, 항할 향)’은 어떤 목적을 향해 그 뜻이 쏠리어 가는 것을 뜻하는 단어이므로, 이 시의 문맥적 의미로는 어울리지 않는다.

[한자어 정리]

㉠ 정직(正直 : 바를 정, 곧을 직) 거짓이나 허식 없이 마음이 올바르고 곧음.
㉡ 타락(墮落 : 떨어질 타, 떨어질 락)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빠지는 일.
㉢ 적막(寂寞 : 고요할 적, 쓸쓸할 막) 쓸쓸하고 고요함.
㉣ 교조(敎條 : 가르칠 교, 가지 조) 사람이 믿으려고 하는 진리 또는 신념.
㉤ 강렬(強烈 : 굳셀 강, 세찰 렬) 강하고 세찬 기운.
㉥ 경건(敬虔 : 공경할 경, 정성 건) 공경하며 삼가고 엄숙함.
㉦ 천부(天賦 : 하늘 천, 구실 부) 하늘이 내려준 것으로, 태어날 때부터 지닌 것.
㉧ 지향(指向 : 가리킬 지, 항할 향) 작정하거나 정한 방향으로 나아감. 또는 그 방향.

<참고> 止揚(지양) : 더 높은 단계로 오르기 위하여 어떠한 것을 하지 아니하다.

㉨ 상업주의를 지양하다/남북 사이의 이질화를 지양하다/모든 사람들이 이 참된 자기에 살고 술책과 이기적 타산을 지양하고 사랑으로 맺어지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4. 답 ③

‘땃장’은 ‘흙을 붙여서 뿌리째 떠낸 잔디’를 뜻하는 우리말 ‘때’에서 나온 말로, ‘흙이 붙어 있는 상태로 뿌리째 떠낸 잔디의 조각’을 뜻한다.

5. 답 ①

인왕리 : Inwang-ri

우리나라 행정구역 단위의 명칭인 ‘도(do)·시(si)·군(gun)·구(gu)·읍(eup)·면(myeon)·리(ri)·동(dong)’과 도로 단위의 명칭인 ‘대로(daero)·로(ro)·가(ga)·길(gil)’은 고유명사의 뒤에 반드시 하이픈[-]으로 연결하여 그대로 적는다. 이 경우 우리말에서 일어나는 발음현상을 적용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③ 고유명사가 아닌 일반명사의 경우는 로마자표기의 첫글자를 대문자로 적지 아니한다.

6. 답 ③

선택지의 내용은 단락 (다)의 마지막 문장에 대한 내용일 뿐이다. ‘본인의 동의 없는 강제적인 화학적 거세는 위헌의 소지가 크다’는 첫 문장을 중심내용으로 잡아야 할 것이다.

7. 답 ③

최근 들어 압존법이 많이 파괴되는 추세에 있던 하지만, 우리 국어 문법에서는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선택지 ③번이 그 중에서 가장 적절한 문장이다. [오답 풀이]

① → ~ 자문(咨文)하고자 전화를 드렸습니다.

② → ~ 주사 맞게 침대에 누우세요. : 높임표현이 너무 과도하다.

④ → 우리나라 국민들은 ~. : ‘우리나라’가 옳은 표현이다.

8. 답 ②

제시된 지문은 김만중의 ‘구운몽’의 뒷부분이다. ‘양소유’란 이름으로 속세에서 여덟 부인들과 부귀 공명을 누리던 성진이 말년에 스승 육관대사의 깨우침을 통해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 온 이후의 장면인데 속세의 부귀공명이 한낱 꿈에 지나지 않는다는 ‘일장춘몽(一場春夢)’을 나타내고 있는 대목이다. 이 부분의 내용에 가장 부합하는 시조는 선택지 ②이다. ②는 이정보의 시조로, ‘부귀공명이 한낱 뜬구름과 같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부귀공명만을 좇고 자연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을 한탄하고 있는 내용이다. 중국 남북조 시대 초기인 동진(東晉)의 시인 도연명이 지었다는 <귀거래사(歸去來辭)>의 영향을 받아 시조 초창 앞부분이 ‘귀거래(歸去來 :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로 시작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중국 은나라의 마지막 왕인 주왕 제신 연간에 제후국이었던 고조국의 공자인 백이와 숙제 형제가 새로 천자(天子)의 지위를 얻은 주나라의 무왕을 향해 ‘두 임금은 섬기지 않겠다면서’ 수양산 깊숙이 들어가 고사리만 먹으면서 연명하던 모습을 비판한 사육신의 한 사람 성삼문의 시조. 백이와 숙제가 연명하고자 먹었던 수양산의 고사리마저도 결국엔 주나라에서 나던 것이 아니라는 물음을 통해 수양산(=조선 세조 임금의 왕자 시절 호칭인 수양대군을 빗댄 말)에서 나는 것조차도 선왕인 단종을 위해서 먹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와 충절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의 시조이다.

③ 고려 충혜왕 때 대제학을 지낸 문신 이조년이 충혜왕의 문란함을 여러 차례 진언하다가 전혀 고쳐지지 않자 벼슬을 내놓고 낙향하였는데 그 이후에 이 시조를 지었다고 한다. 하얗게 달빛이 비치는 배꽃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룰 정도로 임금을 사모하고 충절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절절하게 배어나오는 시조이다. 제목은 ‘다정가(多情歌)’이다.

④ 조선 중종 때 문신 이현보가 지은 연시조 ‘어부단가(漁父短歌)’의 한 수이다. 자연과 함께 하는 삶을 노래하면서(나오지 않은 부분에서는 바닷가 작은 마을에 묻혀 사는 어부의 삶을 묘사하고 있음) 동시에 대궐이 있는 장안(長安=한양)을 향해 약간은 나뉘어 미련을 보이는 듯한 태도(두어라, 내 알 바 아니다. 설마 나라를 구할 어진 인제가 없겠는가.)를 보이고 있는 시조이다.

9. 답 ②

외래어가 우리말로 유입되면서 ‘음운, 형태, 의미적 측면’에서 동화가 되어 나타나는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의 주제는 ‘외래어의 속성’ 내지 ‘외래어의 특성’이 될 수 있다.

10. 답 ②

제시된 내용은 국립국어대사전에 올라 있는 ‘고졸(古拙)하다’의 사전적 의미이다. 빈 칸에 적절하게 들어갈 말은 ‘소박(素朴: 흰 소, 꾸밈없을 박)한’이다. ‘소박(素朴)하다’는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수수함을 뜻하는 말이다.

<고졸하다> : 기교는 없으나 에스럽고 소박한 멋이 있다.
 ¶ 고졸한 분위기의 찻집/조선 시대의 백자는 기교가 넘치는 고려 시대의 청자와는 달리 소박하고 고졸한 멋이 있다.

[오답 풀이]

- ① 곡진(曲盡: 굽을 곡, 다할 진): 매우 정성스러운,
 ③ 섬세(纖細: 가늘 섬, 가늘 세),
 ④ 진중(珍重: 보배 진, 무거울 중): 매우 소중히 여김.

11. 답 ④

제시문에서 음운의 변동 양상을 ‘노력 경제’와 ‘표현 효과’ 두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동화(同化)’로 대표되는 ‘노력 경제’의 경우 가까운 음소끼리의 결합을 통해 청각적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게 하는 반면, ‘이화(異化)’로 대표되는 ‘표현 효과’의 경우 서로 상반된 음소끼리의 결합을 통해 청각적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선택지 ④는 ‘동화(同化)’ 즉 ‘노력 경제’만을 설명하고 있어서 이 글 전체에 대한 내용의 이해라고 볼 수 없다.

12. 답 ②

‘남정(男精)’과 ‘모혈(母血)’의 개념을 통해 인간의 생식 능력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③, ④의 경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 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내용들이다.

13. 답 ④

㉠ → 기술적(技術的)

[비교]

기술적(技術的: 재주 기, 꾀 술): 기술과 관계있는 것, 어떤 일을 재치 있거나 요령 있게 처리하는 것.
 기술적(記述的: 적을 기, 말할 술): 대상이나 과정의 내용과 특징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것. (예) 역사 기술 방법/사회학자는 그 사회의 현상, 구조, 변동 따위에 대하여 적합한 기술을 할 수 있어야 한다./이 역사책은 사료에 대한 철저한 해석과 객관적인 기술로 유명하다

14. 답 ④

→ 뚝배기

<배기>로 끝나는 말: 팍 차다, 불룩하다..는 의미를 지닌다.
나이배기, 알배기, 한 살배기, 언덕배기, 뚝배기, 양코배기.

[오답 풀이]

- ③ 대갈배기: ‘머리’를 속되게 이르는 말.

15. 답 ④

[오답 풀이]

- ① ‘서기체 표기’의 경우 ‘우리말의 문법 형태소를 보충하여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본문에 나와 있다. 그렇다면 ‘서기체 표기’ 자체는 문법 형태소가 전혀 반영되지 아니한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이두체 표기’는 어휘 형태소와 문법 형태소가 구분되어 표기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문법 형태소가 표기에 반영되어 있다는 의미가 된다.
 ③ ‘향찰체 표기’는 ‘국어 문장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 주는 차자 표기 방식’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국어의 어순에 따라 어휘가 배열된 방식이란 것을 알 수 있다.

16. 답 ④

[오답 풀이]

- ① 직유법, ② 직유법, ③ 원관념 ‘붓질’을 보조관념 ‘움직임’과 ‘음악’으로 표현한 은유법

17. 답 ③

‘강밥’은 ‘국이나 반찬 없이 맨밥으로 먹는 밥’을 뜻한다. 따라서 문맥상 ‘반찬을 많이 먹었더니’와 같은 표현을 쓸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강소주: 안주 없이 마시는 소주.

- ② 강된장: 쇠고기, 표고버섯 등 건더기에 된장을 많이 넣고 옥수를 부어 되게 끓인 양념장.

- ④ 강굴: 물이나 그 밖의 다른 어떤 것도 섞지 아니한 생굴.

18. 답 ③

‘체중’, ‘몸무게’와 같이 넓이나 부피의 변화가 생기는 명사의 경우 쓸 수 있는 서술어는 커지는 의미를 뜻하는 경우 ‘체중이 늘다’, ‘체중을 늘리다’로, 작아지는 의미를 뜻하는 경우 ‘체중이 줄다’, ‘체중을 줄이다’로 쓴다. 동사의 형태가 능동형인 ‘늘다/줄다’인지 사동형인 ‘늘이다/줄이다’인지는 조사의 형태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주격조사 ‘이’를 쓰면 능동형 ‘늘다/줄다’로, 목적격조사 ‘을’을 쓰면 사동형 ‘늘이다/줄이다’로 쓰는 것이 옳다.

[오답 풀이]

- ① → 현저한 열세: ‘월등한’은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뛰어나다’를 뜻하는 말인데 ‘다른 것보다 힘이나 세력이 떨어짐’을 뜻하는 ‘열세(劣勢)’와 어울려 사용할 수 없다.

- ② → 성실히 노력한 덕분이다: ‘탓’은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결과에 대한 원인의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라서 이 문장에서는 쓰임이 옳지 못하다.

- ④ →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 보호하는 대상이 ‘주민’ 또는 ‘주민의 생활’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주민의 안전’일 수는 없다.

19. 답 ①

허균이 말하고자 하는 ‘천(天)은 인간의 본연지성을 뜻하는 존엄성을 강조하려는 것’이라는 둘째 단락의 서술을 통해서 이 글의 제목을 유추할 수 있다.

20. 답 ②

→ 그 빠디 훈가지안 아니야: 뜻이 한가지인지 아닌지의 판단을 해야 하는 환경의문문의 형태이기 때문에 보조사 ‘가’를 써야 맞지만, ‘훈가지’, ‘아니’에 서처럼 ‘이’ 모음의 뒷부분이기 때문에 보조사 ‘아’를 써야 옳다.